

“자율·책임 기반 방역관리 강화”

서울시, 거리두기 2단계 대응

방역수칙 위반시 구상권 청구 강화
대중교통 감축 30%→20% 완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특별 점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날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포함해 이전까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했던 시설들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에서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시는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유형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플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같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도 해제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된다.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목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육장업의 경우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송은철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고려해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주(2월 7~13일) 서울시 코로나19 환자 수는 총 1006명으로, 하루 평균 14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2주 전(1월 31일~2월 6일) 일평균 확진자 수 14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근래 연이어 터진 병원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송은철 방역관은 “최근 병원

의 대규모 집단감염은 출입자 관리 및 마스크 착용 미흡,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오늘(15일)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영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행은 2.5단계 때보다 15회(113회→128회) 증차 운행되고, 시내버스는 874회(총347개 노선 3189회→4063회) 증회된다.

시는 야간 시간대 승객 수요와 혼잡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차량운행을 탄력적으로 조정,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200억 투입

작년 말 1749개소, 올해 1800곳 목표
재위탁 심사 ‘필수항목지표’ 도입

서울시는 올해는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1800곳으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작년 말 기준 1749개소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를 기록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43.8%로 타 시·도(평균 15.1%)의 약 3배였다.

시는 지난 2015년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을 발표하고, 공교육 인프라를 늘려왔다. 그 결과 2014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844곳이었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020년 1749곳으로 갑절 이상 증가했다.

시는 금년 200억원을 투자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0개소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6%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보육교사 한 명당 영유아 수를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기준에 영유아 건강·안전 및 시설 설치기준 등 ‘필수항목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2018년 서울 GRDP 423.7조... 전국 경제성장률 상회

(지역내총생산)

시민 1인당 GRDP 4366만원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지역내총생산(GRDP)은 423조 7420억원으로 전국의 22.3%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1인당 GRDP은 4366만원(추계인구 970만4546명 기준)으로 전국 3687만원 대비 약 679

만원 많았고, 전년과 비교하면 229만원 늘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GRDP)’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2018년 한 해 동안 경제활동 결과 자치구별 생산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 내 ‘서울통계간행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3.6%로 전국 경제성장률(2.9%)보다 0.7%p 높았다. 이는 2010년 3.5% 성장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경제활동별 GRDP 규모는 서비스업이 91.9%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고, 제조업은 4.2%로 2년 연속 비중이 감소했다.

/김현정 기자

마곡 벤처·창업기업, 지난해 특허 50건 출원

서울시 마곡 입주기업 29억 매출 달성

서울시는 마곡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이 지난해 5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9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3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으며, 55명의 연구 개발 인력도 신규로 채용했다.

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다중 타겟 질환 개선용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제약전문 벤처기업 엠테라파마는 작년에만 35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단백질 구조 규명과 의약화학을 핵심기술(SBDD)로 항생제 및 항암제를 개발하는 신약 발굴 전문 벤처기업 마스터메디텍은 지난해 11월 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신약개발 벤처기업인 아룸테라퓨틱스는 기존 항암제 내성과 암의 변이와 관련한 신규 타겟 및 신호전달을 기반

으로 하는 혁신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진균류 전문 레이저 제조 전문 벤처기업 오로는 산업용 다이오드 레이저, CO₂ 레이저 등 다양한 레이저 원천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2020년 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또 국내 최초로 동물 피부질환 치료 레이저를 개발, 인허가를 취득했다. 현재 미국 FDA, 대만 FDA 인허가가 진행 중이다.

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곡 산업단지 연구공간 공유제를 운영 중이다.

공유제에 입주한 기업들은 최대 5년간 연구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마곡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혁신 역량을 활용한 컨설팅과 공동 R&D, 해외 진출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청년 희망뉴딜 프로젝트 공모

사업비 최대 500만원 지원

고양시가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 발굴과 사회참여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5일부터 ‘2021년 고양 청년 희망 뉴딜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 스스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행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정책과정 참여를 통해 청년들에게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고양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공모 주제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지원 ▲청년의 사회·경제·문화 전

반 역량개발 지원 ▲청년의 취·창업 지원 ▲청년의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 아이디어이다.

신청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8~39세 청년 3명 이상의 모임 또는 비영리 단체이다. 선정된 단체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내로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메일 혹은 고양시 청년담당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5일부터 3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실태점검

내달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

서울시는 내달 15일부터 12월 말까지 관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 8여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회

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 운영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명령과 같은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1 | 해질 / 18:12

2월 16일 (화)
음력 : 1월 5일

수도권 날씨
-6 ~ -2 °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C): 연천 -10/-2, 동두천 -9/-2, 백령도 -4/-1, 파주 -9/-2, 가평 -9/-1, 서울 -6/-2, 양평 -7/0, 인천 -6/-2, 수원 -5/-1, 용인 -5/-1, 평택 -9/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